

최연의 산 이야기 <4> 북한산 3

산성엔 스님들의 땀방울이 용이처럼 맺혔구나



능선 따라 산성을 쌓고, 드넓은 길목에 성문을 냈다. 성문은 홍예문으로 문루를 올렸다.

북한산은 군사상의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삼국시대부터 산성을 쌓은 기록이 나타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한산성은 백제 개루왕 5년(132년)에 최초로 쌓았다고 한다. 당시 말갈 등 북방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산성의 전신(前身)인 중흥동 고석성(中興洞 古石城)의 위치에 토성(土城)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에 나타난 북한산성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북한산성이 백제 초기에 백제의 북방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고구려가 이를 격퇴하기 위해 여러 번 침공하였다가 물러가곤 했다.

그러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南下政策)으로 고구려의 손에 넘어갔고, 신라와 연합군을 결성하여 되찾았으나 백제 성왕 말년에 신라가 다시 손에 넣었다. 이후 신라 진흥왕 16년(555년)에 신라가 한강지역 전체를 차지한 후 북한산 지역을 순행하여 비불에 순수비를 건립하여 신라의 강역(疆域)으로 확정 지었다.

고려시대에는 북진정책이 대세를 이루어 북한산성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388년 우왕이 최영(崔瑩)장군과 함께 요(遼)나라를 치기로 비밀리 의논하고 한양의 중흥성(中興城)을 수축(修築)하였는데, 이때에 석성(石城)으로 개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이 북한산 장군봉(將軍峰) 아래 중흥동 일대이고 장군봉이란 이름은 바로 최영 장군이 주둔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중흥성 또는 중흥산성으로 불리게 된 연원은 백제 근초고왕 26년(371년)경에 북진정책(北進政策)의 일환으로 수도를 한강 이북으로 옮기고 북한산성을 전략적 거점으로

백제 중흥을 꾀하였기에 그렇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선조(宣祖) 때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仁祖) 때에 북한산성에 대한 축성(築城)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때변 신하들의 반대에 마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숙종(肅宗) 37년에 마침내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4월 3일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9일에 완성하여 거의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산성의 축성에 대한 모든 기록은 <북한지(北漢誌)>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조선 숙종·영조 때의 고승 성능(聖能) 스님이 숙종 37년(1711년)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임명되어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관한 주요 임무를 띠고 약 30년간 중흥사에 머물며 그 여가에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의 역사지리를 집필하였다.

책의 구성은 앞쪽에 북한산의 지세와 북한산성의 주요 시설물을 표시한 3장의 북한도(北漢圖)를 붙였고, 뒤이어 북한산성과 관계된 내용을 도리(道里), 연혁(沿革), 산계(山溪), 성지(城池), 사실(事實), 관원(官員), 장교(將校), 궁전(宮殿), 사찰(寺刹), 누관(樓觀), 교량(橋梁), 장물(倉廩), 정계(定界), 고적(古蹟) 등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에 저자인 성능의 발문(跋文)을 붙였다. 영조 21년(1745년)에 편찬되었다.

<북한지>에 따르면, 성(城)의 둘레는 8.5km(당시의 환산법에 의한 거리)이고 산성을 드나들 수 있는 성문(城門)은 모두 14개인데 북문·대동문·대서문·대성문·중성문 등 5개는 홍예문(虹霓門)으로 만들고 문루(門樓)도 설치하였다. 소동문·소남문 등 2개는 문루는 없으나 홍예

문으로 만들었고, 서암문·백운동암문·용암봉암문·동암문·청수동암문·부왕동암문·가사당암문 등의 7개는 높낮이가 일치하지 않는 작은 문들이다. 암문(暗門)이란 노출을 꺼리는 문이라서 문루를 세우지 않는데 주로 성안에 필요한 병기 및 식량을 운반하고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극비리에 구원을 요청하고 적을 역습하기도 하는 문이다.

대서문 북서쪽 근처에는 수문(水門)이 있었는데 1915년 8월 집중 폭우로 유실되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위의 14개 문 중에서 소동문과 소남문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는데 방위상으로 앞의 4대 성문의 간문(間門)으로 본다면, 소남문은 대남문과 대서문 사이에 소동문은 대동문과 대남문 사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수(將帥)의 지휘소인 장대(將臺)는 봉성암 후봉 즉 시단봉의 동장대, 나한봉 북동쪽의 남장대, 중성문 북서쪽의 북장대의 셋이 있었다. 병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곽의 곳곳에 지은 다락집인 성랑(城廊)은 143개나 되었고 저수지(貯水池)는 26개, 우물은 99개가 있었다.

위급한 난을 피하여 입금이 거주할 행궁(行宮)은 내전(內殿) 28칸, 외전(外殿) 28칸의 규모로 지어졌다. 행궁을 운영 관리할 부서로서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훈련도감(訓練都監)·승영(僧營)·관소성(管城所)·평창(平倉)·경리청(經理廳) 등의 건물들이 북한산성 안에 지어졌다.

특이한 것은 팔도에서 승려들을 산성 축조에 동원하고 완공 이후에는 산성의 수비를 담당케 했다는 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쥐와 나 사이엔 댓이 있다

뜰 뜰에서 나온 아기 손만한 쥐 한 마리가 개밥 그릇으로 달려가 앞발을 가장자리에 올려놓으며 까치발을 딛고 서서 안을 본다. 뜰 뜰에서 나오자마자 그릇으로 거침없이 달리는 것을 보니 처음이 아니다. 개밥을 준다는 것이 쥐밥을 주게 되는 것을 알지도 못 낸 되었다. 개밥이 그릇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푸경을 덮어놓고는 했으나 이즈음은 보고도 그냥 놔둘 때가 많아졌다.

‘에이, 없잖아!’
빈 그릇임을 확인한 쥐는 일으킨 몸을 다시 누이며 모던 길로 지체 없이 되돌아가 나 왔던 뜰 뜰로 모습을 감춘다.

‘그놈 참 찜찜하기도 하다.’
잠깐 동안 시야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쥐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배가 고프을까? 쥐의 입장에서 모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예민히 웃음이 나올까? 내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은 산 중턱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열 집 중 하나다. 마을 사람들 얘기를 모아보면 최소한 5,600년은 넘은 집이다. 100년은 됐을 거라는 사람도 있다. 도끼로 나무를 다듬어 지었다고 해서 ‘도끼목수가 지은 집’이라 한다. 기초가 흠과 돌로 된 집이어서 쥐가 구멍을 파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다. 동쪽은 숲과 이 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쥐들이 먹을 것을 알기도 좋다. 집안에 양식까지 쌓여 있으니 쥐가 많은 것이 자연스럽다. 주걱지가 겹치고 먹물겨리가 겹치는, 사람과 쥐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엄지 손가락만한 땃쥐부터 팔뚝만한 집쥐까지, 이 집에서 내 손에 죽어간 쥐들이 몇 마리나 될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 어림잡아도 100마리는 넘을 것 같다. 천장 위가 그들의 놀이터 겸 화장실 겸 찌릿기 터이기도 하여 밤잠을 설치기 예사된 날들이 이어졌다. 쥐들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은 때가 언제였더라? 비어있던 집을 방 하나만

쥐도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손을 바사 들어온 것이 1998년이었으니, 그 해 겨울을 보내면서였을 것이다. 처음엔 짐작을 지붕아래 공간에 던져 넣어, 냄새에 예민하다고 하는 쥐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썼다. 그 해는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 해, 다시 천장 위를 오가는 쥐들에겐 통하지 않았다. 끈끈이 땀을 사다가 처마 밑과 마루 밑 곳곳에 놓았다. 가운뎃손가락 크기 정도의 산쥐들은 잘 잡혔지만 집 쥐들은 끈끈이가 발라진 종이 자체를 먹어치우기도 망했다. 쥐약을 사서 놓았다. 효과는 좋았으나 개가 죽은 쥐를 물고 다니고 구더기가 천장을 뚫고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고부터는 쓰지 않았다.

시장에 가니 댓이 있었다. 바가지 크기 몇 하나를 사다가 놓으니 잘 잡혔다. 그래 몇 개를 더 사다가 놓을 요량으로 다음 오일장에 가서 댓을 찾으니, 그건 불법이어서 더는 팔 수가 없었다. 대신 손바닥만한 댓을 세 개 사왔다. 번번이 미끼만 따먹었다. 철물점에서 상자형태의 댓을 사와 설치했다. 출만했다.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부엌으로 들어오는 작디작은 땃쥐를 잡기 위해, 싱크대 밑엔 항상 끈끈이를 펼쳐놓았다. 비로소 쥐의 집에서 사람의 집이 된 듯 했다.

아침부터 흐릿하던 하늘에서 봄을 재촉하는 축축한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쥐가 들이간 뜰 뜰 입구에도 개밥그릇 속에도 그 사이에서 막 땀땀히 고개를 내민 원추리 싹 위에도 함박눈이 내린다. 땅에 닿자마자 녹으며 땅의 색깔을 진하게 드러내면서 하얗게 내린다.

쥐를 죽이고 싶어 죽이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집만큼은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고 싶다. 쥐를 잡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다. 쥐들 또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어쩌면 이 집이 그들에게는 어느 곳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공간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쥐를 잡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천적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어찌됐든 잡고 잡히는 관계 속에서 나와 쥐들은 살아간다. 연민도 미움도 끼어들 틈은 없다. 뜰 뜰로 사라진 쥐가 댓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댓을 놓는 일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 쥐는 잘 피하면서 살아야 하고 나는 잘 잡으면서 살아야 한다.

■유승도 (시인)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운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등 할인기

011-554-2988
011-879-0889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508-0101 인터넷: 070-7425-0518

※ 36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달력 카달로그는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 용품카드릭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공단등 (6cm) @2,400원(80개이상)	바림등 (6cm) @2,600원(80개이상)
공단등 (8cm) @3,000원(96개이상)	바림등 (8cm) @3,300원(96개이상)
공단등 (10.5cm) @5,000원(24개이상)	바림등 (10.5cm) @5,500원(24개이상)
공단등 (13cm) @12,000원(12개이상)	바림등 (13cm) @13,000원(12개이상)
공단등 (20cm) @30,000원(4개이상)	바림등 (20cm) @35,000원(4개이상)
공단갈라등 (6,8,10,5,13,20,30cm)	바림갈라등 (6,8,10,5,13,20,30cm)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비단정등(12cm) @29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3cm / 25cm / 30cm
50cm / 1m ※ 기타주문생산

연일(일반) 5,000원(1부용)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LED전구(국산) 2,500원(50개이상) 1BOX: 50개 / 백열전구 대체용: 동진전구

밀대양초(70개) 77,000원 *삼할양초(국산) 크기: 4.6×25cm

파라핀(12명) 50,000원 *하나양초(국산) 1BOX: 1.8×12명

영원향(단) @10,000원 (10개이상) 길이: 14.2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편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불삼 /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giban
나만의 힐링세계 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giban
힐링 선정과 만남 진정한 만남의 만남입니다 giban